

사회

광주 교육비리 추악상 노출

자살 교육청 간부 유족 “200만원 받고 1200만원 뜯겨”
정수기 업자 “학교 운영비로 달라고 해 1200만원 줬다”
모 중학교 행정실장 “업자 협박 못이겨 경찰에 고소했다”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50대 교육청 간부가 투신자살한 사건(광주일보 25일 6면)과 관련, 정수기업자와 교육 공무원간 뇌물을 놓고 ‘물고 물리는’ 검은 유착관계가 새록새록 드러나고 있다.

계좌로 보낸 돈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뇌물액수로 간주되자, 김씨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생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부터 이씨는 지난해 시교육청의 위생검사에서 자신이 A등급에 걸렸던 정수기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철거될 처지이고 앞으로 이 정수기의 설치에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당신을 믿고 광주 C중학교에 설치한 신형 정수기 대금 5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女高 정구부 승부조작 감사 착수

광주시교육청이 ‘여고 정구팀 감독·코치 승부조작’ 의혹(광주일보 2월 25일 6면)과 관련, 광주 D여고 정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5·18 기념재단 광주항쟁 ‘진실 조사팀’ 신설

5·18 기념재단(이사장 김준태)이 5·18 광주항쟁사에서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실제가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팀’을 꾸린다.

니원침 (8254) 김종두



삼호주얼리호 해적들

드림호 납치에도 가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드림호 납치에도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성범죄 방지 안전지도 나왔다

학교·집 어린이들 동선따라
광산구 영천초교 주변 제작

광주시 광산구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에는 영천초를 중심으로 대반초·목련초·금구초 등 학교 주변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술집·유흥가 등 유해지역 6곳이 그림으로 표시돼 있다.



25일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남창계곡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직원들이 담비·너구리·족제비 등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발견된 곳에 옥수수를 뿌리고 있다. 이들은 먹이주기 행사를 한 뒤 불법 설치된 덫을 제거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노숙자 보호시설 40대 女 숨진채 발견

광주의 한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5%P 이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4.9% 수준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돈돈 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3% 중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철 前 광주경찰청장

함바비리 연루 소환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을 25일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today (Feb 26).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nd a table of regional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like Gwangju, Seoul, and Jeonju.

Obituary notices for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Maek Gung-sook (73), Kim Geun-yeol (58), and others. Each notice includes the deceased's name, age, dates of birth and death, and funeral arrangements.

Obituary notice for Maek Gung-sook (73), Kim Geun-yeol (58), and others. Includes details about the funera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